



리우 입성한 태권전사들 한국태권도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갈레앙국제공항에 도착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태권도 경기는 17일부터 4일간 올림픽파크 카리요아 3관에서 펼쳐진다. 리우데자네이루 1 뉴스

# 위기의 '10-10'... 금빛 발차기를 부탁해

(금메달 10개·총합 10위)

## 한국 대표팀, 유도·펜싱 예상 밖 부진 배드민턴·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도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은 15일 낮 12시(한국시간) 기준으로 금·은·동 5개의 메달을 획득해 10위에 올랐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종목과 깜짝 금메달리스트도 탄생했지만, 한국 선수단 전체로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 양궁에선 사상 첫 올림픽 전 종목(4개) 석권의 위업을 달성했다. 남녀단체

전에서 일찌감치 동반 금메달을 차지했고, 12일 여자개인전 장혜진(LH공사)에 이어 13일 남자개인전 구본찬(현대체질)이 나란히 정상에 서며 양궁에 걸려있는 4개의 금메달을 독식했다. 한국이 양궁 강국이긴 하지만 올림픽 전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격 에이스 진종오(KT)도 주 종목인 남자 50m 권총에서 올림픽 3연패에 성공했다. 10m 공기권총에선 다소 부진했지만 주 종목에 나선 그는 달랐다. 한 차례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침착성을 잃지 않고 역전드라마를 쓰며 정상에 섰다. 전 종목목을 통틀어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유도는 은·동 1개를 획득하는 데 그치며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4명이 출격했지만, 모두 정상 등극에는 실패했다. 펜싱대표팀도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박상영(한체대)이 금메달,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지만 당초 전망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대회를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했던 남자축구대표팀도 14일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 0-1로 털미를 잡혀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한국은 남은 기간 레슬링, 배드민턴, 여자골프,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을 포함한 메달 추가를 노리고 있다. 배드민턴은 남녀 복식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금메달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메달을 따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자골프는 '메이저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인비(KB금융그룹)를 비롯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주름잡는 멤버들이 총출동했다. 태권도는 한국의 효자종목으로 금메달 2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손연재(연세대)가 출전하는 리듬체조에서도 메달 추가가 기대된다. 최홍식 기자 gtyong@donga.com

## 리우 안테나

### 머레이, 사상 첫 테니스 단식 2연패

앤디 머레이(29·영국)가 최초로 올림픽 테니스 단식 2연패를 달성했다. 머레이는 15일(한국시간) 올림픽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후안 마틴 델 포트로(아르헨티나)를 세트스코어 3-1(7-5 4-6 6-2 7-5)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머레이는 2012년 런던대회에 이어 다시 단식 왕좌에 오르며 올림픽 테니스 단식 사상 처음으로 2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테니스 여제' 비너스 윌리엄스(36·미국)도 같은 날 혼합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갈래 자신의 올림픽 메달 숫자를 5개(금·4·은 1개)로 늘렸다. 이는 캐슬린 맥케인(영국)이 1920년대 획득한 5개와 타이 기록이다.



한국여자역도, 75kg 이상급 메달 좌절 한국여자역도가 75kg 이상급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희솔(27·울산시청)과 손영희(23·부산역도연맹·사진)는 15일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관에서 벌어진 여자 75kg 이상급 A그룹 경기에서 각각 5위와 6위에 머물렀다. 이희솔은 인상 122kg, 용상 153kg, 합계 275kg을 들어올렸고, 손영희는 인상 118kg, 용상 155kg, 합계 273kg을 기록했다. 금메달은 합계 307kg의 명수핑(중국)에게 돌아갔고, 북한 김국향은 합계 306kg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여자역도는 53kg급 윤진희(30·경북개발공사)만이 동메달을 획득한 채 이번 올림픽을 마감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배드민턴 여자복식 정경은-신승찬 4강행

### 남복식 김사랑-김기정은 4강 좌절

배드민턴 여자복식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세계랭킹 5위)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4강에 올랐다. 정경은-신승찬은 15일(한국시간) 리우센트루 파빌리온4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복식 8강전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네덜란드의 에이피에 무스켄스-셀레나 픽(세계랭킹 11위)을 세트스코어 2-1(21-13 20-22 21-14)로 따돌리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정경은-신승찬은 16일 오후 10시30분 일본의 마쓰모토 미사키(24·다카하시 아이카)와(26·세계랭킹 1위)와 결승 진출을 놓고 승부의 한일전을 벌인다. 정경은-신승찬은 1세트를 21-13으로 따낼 때만 해도 무난하게 4강행을 확정짓는 듯했다. 그러나 2세트 20-16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20-22로 무너지

면서 경기는 접전 양상으로 돌변했다. 3세트 초반 정경은-신승찬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정경은의 스트로크가 살아나고 상대의 실수까지 겹친 덕에 승기를 잡았다. 2012런던올림픽 여자복식에서 고의패배 논란에 휩싸여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정경은은 이번 대회 준결승 진출로 자신의 2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꿈에 그리던 메달권 진입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한편 남자복식 8강전에서 김사랑(27)-김기정(26·이상 삼성전기·세계랭킹 3위)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푸하이핑(32)-장난(26·세계랭킹 4위)에 세트스코어 1-2(21-11 18-21 22-24)로 역전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김사랑-김기정은 1세트를 21-11로 승리한 데 이어 2세트에서도 18점까지 먼저 냈지만, 뒷심 부족으로 통탄의 역전패를 당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정경은(뒤)-신승찬이 15일(한국시간) 리우센트루 파빌리온4 경기장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8강전에서 네덜란드의 에이피에 무스켄스-셀레나 픽을 맞아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경은-신승찬은 세트스코어 2-1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 리우데자네이루 1 AP뉴스

## 리우판 '우생순' 없었다

### 여자핸드볼, 아르헨 잡고도 8강 진출 실패

리우에서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는 없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핸드볼대표팀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8강에도 오르지 못한 채 탈락하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자핸드볼은 1984년 LA올림픽부터 2012런던올림픽까지 8회 연속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 기간 금·은·동 3·1·1개를 따냈다. 그러나 리우에선 1승1무3패로 조 4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 티켓조차 얻지 못했다. 스포츠동아 강재원 해설위원은 "최선을 다했을 텐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첫 경기부터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힌 러시아(25-30 패)를 만나며 기세가 꺾였다. 설상가상으로 스웨덴전(28-31 패)에선 에



여자핸드볼대표선수들이 1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전에서 승리하고도 8강 탈락에 따른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1 AP뉴스

이스 김은아(28)의 부상이라는 최악의 악재와 직면했다. 김은아가 빠지면서 대표팀의 공격 옵션은 치명상을 입었다. 반드시 이겼어야 했던 네덜란드전마저 가까스로 32-32 무승부로 마쳤다. 골키퍼 오영란(44)이 종료 직전 페널티스로를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이 경기 또

한 넘어갈 뻔했다. 대표팀의 운명을 결정지은 프랑스전(17-21 패)에서도 후반 15분 동안 무득점에 그치며 또 역전패를 당했다. 체력이 강한 유럽을 만나 시종 전반의 우세를 지키지 못했다. '속공 외에는 공격의 패턴 플레이가 단조로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팀은 15일 마지막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28-22로 잡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이제 리우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은 오영란, 우선희(38) 등 소위 '아줌마 세대'와 결별한다. 강 위원은 "비록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여자대표팀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있다고 믿는다. 2020도쿄 올림픽에 맞춰 핸드볼인들이 선수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준다"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 galzby@donga.com

## 프로골퍼 최나연의 올스타그램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최나연입니다. 뜨거운 폭염만큼이나 리우올림픽의 열기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림픽에 폭 빠져 살았던 저도 이제 그 감동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선수가 아닌 해설자로 잠시 역할을 바꿨지만, 우리의 태극양자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응원하시죠.

### #말고도 험한 리우행 #그래도 설렘



드디어 리우도 떠납니다.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우행 비행기 티켓을 받아오니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비행기에 오르면 설렘으로 가슴이 떨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리우까지 1박2일의 긴 여정이지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떠나겠습니다. 리우여, 기다려라!! 내가 간다~~

### #새로운 직업 #떨려요



골프웨어를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같이 입었습니다. 저 어때요? 메이크업까지 살짜~ 변신을 했더니 제법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매일 이런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TV에서 잘 보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 #2016리우 #한국여자골프 파이팅!



선수로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하는 아쉬움은 큼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리우 하늘에 태극기를 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여자골프 파이팅!!

## SNS 속에 비친 리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는 SNS 업데이트 속도에서 '번개' 다웠다.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81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트랙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한 뒤 곧장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는 이내 자신의 트위터에 "자메이카어, 일 어라!! (금메달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사상 첫 올림픽 100m 3연패의 감격을 자국민들과 함께 했다. 약 2시간 뒤에는 자신의 사진까지 게재하며 쉽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출처 | 우사인 볼트 트위터

## 연예 기사가 뜬 올림픽 스타 '짐승돌 체조스타' 맥스 윌트락



잘 생기고 몸매까지 좋은 아이돌 스타에만 붙는 수식어, '짐승돌'이 어울리는 올림픽 스타의 발견이다. 무쇠라도 부러뜨릴 듯한 근육질 팔을 가졌지만 외모는 미소년 그 자체다. 15일 기계체조 마루와 안마에서 영국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금메달을 선사한 주인공 맥스 윌트락이다. 유니온 잭을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을 짓는 모습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계속 보고 싶은 충동마저 일으킨다. 심지어 1993년생, 23살, 이 모습 그대로 무대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면 새로운 아이돌 스타의 탄생은 시간문제다.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